

태음인 표병군과 리병군의 증후 차이에 대한 분석 : 대기관 약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김상혁 · 박기현 · 장은수 ·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Differences in the Symptoms between Exterior-disease and Interior-disease of TE type - Based on 659 Subjects -

Sang-Hyuk Kim, Ki-Hyun Park, Eun-Su Jang, Jong-Yoel Ki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ordinary symptoms of TE type(Tae-eumin) and to compare the tendency of their symptoms according to the Exterior- or Interior- disease.

2. Methods

We recruited 659 TE type(Tae-eumin)-subjects in multi-oriental hospitals and researched their ordinary symptoms. Subjects were diagnosed by the Sasang Constitutional specialists in oriental hospitals, and had remarkable improvement in the chief complains after Sasang Constitutional Medication.

Subjects were divided two groups. One group had the Exterior-cold disease and they took the prescription for the Exterior-cold disease(such as Taeumjowi-tang, Jowiseungcheong-tang, Nocyongdaebo-tang etc.). The other group had the Interior-febrile disease and they took the prescription for the Interior-febrile disease(such as Galgunhaegui-tang, Yeoldahanso-tang, Cheongsimyeonja-tang, Gongjinhugwon-dan etc.).

All subjec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about their symptoms. We found the differences of answers using the Chi-square test between-group comparisons. We analyzed using SPSS 12.0 for Korean.

3. Results and Conclusions

In symptoms, Quantity of meal($p=.009$), Perspiration of head and face($p=.001$), Aspect of Excrement($p=.027$), Presence of pain after excrement($p=.001$), Frequency of urination at night($p=.003$), Clarity of urine($p=.041$), Sleep during the day($p=.049$), Warm or cold feeling on abdomen($p=.007$), etc.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Exterior- or Interior- disease.

We found the differences of symptoms between not only the constitutional types but also the types of disease.

Key Words : Constitution, Clinical Research

• 접수일 2009년 06월 23일; 심사일 2009년 07월 06일;
승인일 2009년 08월 05일
• 교신저자: 김종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
연구원 체질의학연구본부
Tel: +82-42-868-9489 Fax: +82-42-868-9480
E-mail: ssmmed@kiom.re.kr

•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기관고유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Grant No. K09011).

I. 緒 論

동무공은 사상의학을 제시함에 있어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 “明知其人 而又明知其證 則應用之藥 必無可疑”라 하여 약을 사용함에 人과 證을 바르게 알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중에 證에 대해서 생리적 증과 병리적 증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는데¹ 생리적 증을 素證이라 하여 병증발현에 있어 素證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². 즉 소증은 병증발현의 차이를 유발하여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출발점이 되므로³ 소증과 병증 모두 사상체질적 병증관리에 꼭 필요한 요소로 중시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第五統」에서 태소음양인의 각 체질에 따른 체형, 피부상태, 얼굴색, 수면양태, 땀, 대변, 소변, 심리상태, 및 질병을 앓고 있을 때의 제반증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소증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⁴. 사상체질의 소증과 병증에 관해서는 문진표를 중심으로 김 등⁵⁻⁷이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체질별 소증에 대한 연구^{8,9} 외에 대변¹⁰, 땀¹¹, 수면¹²⁻¹⁴, 소화¹⁵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다기관 약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여 소증에 대한 임상적 연구^{16,17}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소증연구는 사상체질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체질진단의 요소로서 소증 항목 문항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을 뿐, 같은 체질 안에서 표리병군 간에 따른 소증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무공은 『東醫壽世保元』 「胃院受寒表寒病論」에서 “大凡瘟疫 先察其人素病如何 則表裏虛實 可知已 素病寒者 得瘟疫 則亦寒證也 素病熱者 得瘟疫 則亦熱證也 素病輕者 得瘟疫 則重證也 素病重者 得瘟疫 則險證也”라고 언급하였고, 체질별 치험례에서 소증을 언급하여 같은 체질이라 하더라도 평소의 소증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병증과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소증의 분석은 체질간 비교뿐만 아니라 같은 체질 안에서도 환자의 예후를 추정하고 치료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상체질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약진에 의해 주증 및 소증이 호전된 태음인군을 대상으로 하여 표병군과 리병군에 따라 소증의 차이와 설문지의 증

후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1. 연구대상

과거 한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체질진단 및 약리기록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의무기록이 있는 만 9세 이상 85세 이하의 남녀로 본 연구에 협조하려는 자 중 사상체질 임상 5년 이상의 경력자 중 체질처방 비율이 90% 이상인 한의사 혹은 사상체질전문과의의 면담을 통해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소증, 약리기록을 기반으로 의해 태음인으로 체질을 진단 받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약진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체질진단 및 병증분류 기준

- 태음인 체질처방을 최소 60점 이상(동병증 처방) 투여받고 최소 4회 이상 방문하여 경과를 관찰한 사람들 중에서 부작용이 없으며 주증 또는 소증이 중등도 이상 호전된 사람
- 태음인 체질처방을 10점 이상 60점 미만(동병증 처방)으로 투여 받은 사람 중에서 부작용이 없으며 주증과 소증이 중등도 이상 호전된 사람
- 표병증 및 리병증 처방의 분류: 표병 처방군은 태음 조위탕, 조위승청탕, 녹용대보탕 및 그 가감방으로 정의하였고, 리병 처방군은 갈근해기탕, 열다한소탕, 청심연자탕, 공진흑원단 및 그 가감방으로 정의하였다.

2) 약진에 의한 대상자 모집기준

- 주증평가: 대상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명확한 호전이 있거나 중등도의 호전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 소증평가: 환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여 태음인에 해당하는 完實無病 항목의 소증이 호전되거나 그 외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소증에 명확한 호전이나 중등도의 호전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잡았다.
- 증후 항목: 식사(규칙성, 양, 속도), 소화상태(소화불

Table 1. The Number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Each Group

	Exterior-disease group		Interior-disease group		Total
	M	F	M	F	
N (%)	63(9.6)	95(14.4)	223(33.8)	278(42.2)	659(100)
*Yr	38.2(10.2, 78.5)	48.8(10.9, 81.6)	49.7(10.7, 85.1)	52.3(9.0, 78.9)	50.0(9.0, 85.1)
† Hight	170.2±9.2	158.0±5.6	169.0±7.2	157.1±6.2	162.5±9.0
† Weight	72.9±13.9	62.7±10.3	72.8±11.4	62.2±9.2	66.9±11.8

* : Median(Min, Max)

† : Mean±SD

량 여부, 식욕), 땀(양, 발한 후 상쾌도, 부위, 자한 및 도한 여부), 대변(습관, 횡수, 소요시간, 정상, 양상, 용변 후 상쾌도), 소변(횡수, 야간뇨 횡수, 세기, 탁도, 불편감 여부), 피로(정도, 시간대), 수면(꿈, 습관, 수면시간, 한열(민감도, 부위), 飲水(양, 온도), 두통(부위, 양상), 눈(피로감, 양상 등), 입/목(건조감, 불편감 등), 가슴(흉민, 정충 등), 배(체합, 복통 등), 피부(건조, 가려움) 등의 증후 항목이 사용된 설문지의 소증·병증 지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첨부 참조).

2. 연구방법

2006년 11월 1일~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 혹은 전문가가 있는 전국 11개 대학교 한방병원과 10개 지역한의원에서 모집된 대상자에 대하여 표준작업지침(SOP)에 의거, 설문작업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는 대상자 설명서를 안내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대상자가 18세 이하인 경우 동의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게 하였다. 소증·병증 지표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되 최근 6개월 내의 증상을 문진을 통해 작성하였다. 설문은 상기한 증후 항목에 대해 피험자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항에 따른 태음인 표병군과 리병군의 응답빈도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상기 연구는 기관IRB의 심의를 통과하였다(승인번호 I-2008/010-001).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입력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 분석으로는 SPSS 12.0K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태음인 표병군과 리병군의 응답 빈도수의 차이는 Chi-square test의 방법으로 비교하였으며,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III. 研究結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태음인은 659명이었으며 표병군은 158명, 리병군은 501명이었다. 남녀별 분포와 각각의 연령, 키, 체중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증후 차이

1) 식사 및 소화

식사량 부분에서 표병군과 리병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식사량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며, “적다”고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다.

2) 땀

머리와 얼굴 부위의 땀에 대한 부분에서 표병군과 리병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니오”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며 “예”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다.

3) 대변

대변의 양상과 배변시 통증의 유무에 대한 부분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변의 양상에서 “변비”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고, “보통”과 “설사”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다. 배변시 통증의 유무에서는 “아니오”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며 “예”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다.

Table 2. Difference of the Symptoms according to Exterior- and Interior-Disease of TE type

Variable			Exterior-disease group N (%)	Interior-disease group N (%)	Total N (%)	*p-value
Meal	Amount	moderate	88(55.7)	275(54.9)	363(55.1)	.009
		over	38(24.1)	74(14.8)	112(17.0)	
		light	11(7.0)	69(13.8)	80(12.1)	
		unsteady	21(13.3)	83(16.6)	104(15.8)	
Sweat	Head and Face	no	79(50.0)	176(35.1)	255(38.7)	.001
		yes	79(50.0)	325(64.9)	404(61.3)	
Feces	Aspect	diarrhea	10(6.3)	12(2.4)	22(3.3)	.027
		constipation	17(10.8)	90(18.0)	107(16.2)	
		shift	9(5.7)	31(6.2)	40(6.1)	
		dependent on food	45(28.5)	157(31.3)	202(30.7)	
		moderate	77(48.7)	211(42.1)	288(43.7)	
	Presence of pain	no	28(80.0)	45(48.4)	73(57.0)	.001
		yes	7(20.0)	48(51.6)	55(43.0)	
Urine	Frequency at 1 night	none	89(56.3)	206(41.1)	295(44.8)	.003
		1 time	51(32.3)	186(37.1)	237(36.0)	
		2 times	9(5.7)	58(11.6)	67(10.2)	
		more than 3times	9(5.7)	51(10.2)	60(9.1)	
	Clarity	no	66(41.8)	256(51.1)	322(48.9)	.041
		yes	92(58.2)	245(48.9)	337(51.1)	
Sleep	During the day	no	140(88.6)	468(93.4)	608(92.3)	.049
		yes	18(11.4)	33(6.6)	51(7.7)	
Abdomen	Warm or Cold feeling	warm	17(10.8)	107(21.4)	124(18.8)	.007
		moderate	32(20.3)	119(23.8)	151(22.9)	
		cold	67(42.4)	173(34.5)	240(36.4)	
		unconscious	42(26.6)	102(20.4)	144(21.9)	
	Stomachache	no	138(87.3)	483(96.4)	621(94.2)	<.001
		yes	20(12.7)	18(3.6)	38(5.8)	
Headache	Temporal side	no	66(65.3)	283(78.2)	349(75.4)	.008
		yes	35(34.7)	79(21.8)	114(24.6)	
Mouth/Throat	Cough	no	122(77.2)	453(90.4)	575(87.3)	<.001
		yes	36(22.8)	48(9.6)	84(12.7)	
	Sore throat	no	138(87.3)	470(93.8)	608(92.3)	.008
yes		20(12.7)	31(6.2)	51(7.7)		
The Others	Dizziness	no	122(77.7)	330(65.9)	452(68.7)	.005
		yes	35(22.3)	171(34.1)	206(31.3)	

* : by Chi-square test

4) 소변

야간뇨의 회수와 소변의 탁도에 대한 부분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야간뇨 회수에서 “없음”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며, “2회/1일”과 “3회이상/1일”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다. 소변의 탁도에서는 “맑음”항목에 “예”라

고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다.

5) 수면

수면 습관의 “낮에 자주 잠” 항목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다.

6) 한열

한열 부분에서는 특히 배의 한열을 묻는 문항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가 따뜻하다”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배가 차다”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다.

7) 두통

두통에서는 옆머리의 불편감을 묻는 질문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으며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다.

8) 입/목

입/목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침”과 “인후통” 항목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침”과 “인후통” 모두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표병군이 많았다.

9) 배

배에서 느끼는 불편감에 대한 질문에서는 “복통” 항목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으며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다.

10) 기타

기타 증상에서는 “어지럼증” 항목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니오”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며 “예”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다(Table 2).

IV. 考 察

동무공은 그의 저작인 『東醫壽世保元』,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武遺稿』 등에서 병증의 발현에 있어서 소증의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소증이란 병증과는 달리 병리화되기 전단계 혹은 준건강 상태에서 나타나는 평소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상체질의학을 임상에 적용하는 경우에 환자의 소증은 중요시되는 항목이며, 이러한 소증의 내용과 체질별 차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체질소증, 체질병증이라는 개념 하에서 각 체질간의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이용하여 체질진단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무공은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病證論」 부분에서 몇가지 치험례를 언급하면서 같은 태음인이라 하더라도 소증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소증에 의해 질병의 예후와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상체질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약진에 의해 주증 및 소증이 호전된 태음인군을 대상으로 하여 표병군과 리병군에 따라 증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태음인 대상자들의 표병군과 리병군의 분류는 사용 처방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태음조위탕, 조위승청탕, 녹옹대보탕 및 그 가감방을 표병 처방으로, 갈근해기탕, 열다한소탕, 청심연자탕, 공진후원단 및 그 가감방을 리병 처방으로 구분하여 동병증 처방군이 투여된 태음인을 각각 표병군과 리병군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대상 태음인은 659명이었으며 표병군은 158(24.0%), 리병군은 501명(76.0%)로 리병군의 태음인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식사 및 소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식사량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며, “적다”고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다. 다기관 약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여 체질별 소증 및 병증지표에 대한 장16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량에 있어 “과식”과 “폭식” 항목에 태음인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고 하고 있어 체질별 비교에서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식사량이 많을 수 있으나 같은 태음인 안에서도 표리병의 양상에서 식사량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병군과 리병군 모두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식사량에 있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음을 감안해볼 때, 임상에서 식사량이 특히 “많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표병의 경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식사량이 특히 “적다”고 응답한 경우는 리병의 경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머리와 얼굴 부위 땀의 유무에 대해서 “아니오”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고 “예”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다. 그러나 표병군은 땀의 유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비율로 응답을 하고 있으며, 장16의 연구에서 태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다한”항목에 많은 응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임상적으로 적용 시 머리와 얼굴 부위의 땀 유무에 대해 특히 “예”라고 응답한 경우 리병의 경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증후 항목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변의 양상과 배변시 통증의 유무에 대한 부분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변의 양상에서 “변비”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고, “보통”과 “설사”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며, 배변시 통증의 유무에서는 표병군은 “아니오”에 리병군은 “예”에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태음인 설사와 관련된 조문은 표한증 설사, 표열증설사의 표현은 물론 태음인 표리병론 모두에서 보이고 있으나 “大便滑者 必用 乾栗, 薏苡仁 等屬 大便燥者 必用 葛根 大黃 等屬”의 표현에서 추정해볼 때 표병에서는 설사의 경향성이, 리병에서는 변비의 경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에서는 표리병군 모두 “보통”에 응답한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장16의 체질별 비교에서 “보통”에 응답한 경우는 소음인이 가장 많았으며 태음인이 가장 적었다는 결과와도 상반되는 내용을 보이고 있어 추후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변비”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의 경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설사”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의 경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배변시 통증의 유무에 대한 응답은 “변비”라는 응답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소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야간뇨 회수에서 “없음”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며, “2회/1일”과 “3회이상/1일”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다. 소변의 탁도에서는 “맑음”항목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다. 표리병군 모두 야간뇨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해볼 때, 임상에서는 야간뇨의 회수에 대해서 “2회/1일”과 “3회이상/1일”이라고 응답한 경우 리병의 경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소변의 탁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야간뇨의 회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리병군에서 많은 것은 태음인 조열증의 飲一溲二, 즉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수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면 습관의 “낮에 자주 잠” 항목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으나, 표리병군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고 p값 또한 높아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예”라고 응답한 경우 표병군이 많은 것과 관련하여, “낮에 자주 잠”을 단지 수면의 항목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東醫四象新編』 「虛勞」에서 通治方으로 태음조위탕, 조위승청탕, 녹용대보탕, 공진홍원단이 사용되는 것과 연관지어 오히려 허로나 기허의 범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배가 따뜻하다”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배가 차다”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다. 이는 태음인 병증의 한열이 복부의 한열로 표현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외의 신체증상에서 옆머리의 두통, 입/목 부위의 “기침”과 “인후통”, 복통의 유무, 어지럼증의 유무 등이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복통의 유무와 기침의 유무의 경우 $p < .001$ 로 표병군에서 유의하게 빈도수가 높았다. 복통에 있어서는 “아니오”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고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았으나 실제 비율에 있어 표리병군 모두 “아니오”에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아 임상적으로 복통이 있는 경우 표병의 경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침에 있어서는 “아니오”에 응답한 경우는 리병군이 많았고 “예”에 응답한 경우는 표병군이 많아 임상적으로 기침이 있는 경우 표병의 경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무공은 『東醫壽世保元』 「胃脘受寒表寒病論」에서 “大凡瘟疫 先察其人素病如何 則表裏虛實 可知已 素病寒者 得瘟疫 則亦寒證也 素病熱者 得瘟疫 則亦熱證也 素病輕者 得瘟疫 則重證也 素病重者 得瘟疫 則險證也”이라 하였

고 「肝受熱裏熱病論」의 치험례에서는 소증에 따라 병의 예후와 처방이 달리짐을 보여주었다. 현재 사상체질임상에서도 소증을 체질진단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같은 태음인이라 하더라도 표병이나 리병이나에 따라 소증이 다르다는 내용은 다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환자를 표리병군으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비교해본 예는 없었다. 본 연구는 사상체질 전문가의 진단과 약진을 통해 확진된 태음인 대상을 표병군과 리병군으로 나누어 소증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우선 증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몇 가지 증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후향적 증례 연구라는 점, 표병군과 리병군간의 대상자 수 차이가 많다는 점, 단순히 증후 차이의 분석이라는 점,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문항목이 변경되어 분석에서 누락된 문항이 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V. 結 論

본 연구는 사상체질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약진에 의해 주증 및 소증이 호전된 태음인 659명을 대상으로 표병군(158명)과 리병군(501명)에 따른 증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으로는 식사량, 머리와 얼굴 부위의 땀, 대변의 양상과 통증의 유무, 야간뇨 회수 및 소변의 탁도, 낮잠의 유무, 배의 한열 등이 있었으며 그 외 기타 신체증상으로는 옆머리의 두통, 입/목 부위의 기침과 인후통, 복통의 유무, 어지럼증의 유무 등이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같은 태음인이라 하더라도 표병군과 리병군에 따라 증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소증에 따라 병증 발현이 다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추후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VI. 感謝의 말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Grant No. K09011).

VII. 參考文獻

1. Song IB. The Study about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Constitutional Syndromes and Constitutional Pathological Syndromes.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4;6(1):71-79. (Korean)
2. Ham TI, Hwang MW, Lee TK, Kim SB, Lee SK, Koh BH, et al. The Clinical Study on Ordinary Symptoms and Pathological Symptoms of Stroke In-patients based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16(3):34-45. (Korean)
3. Lee SK, Song IB. The Study about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of Sasangin on the 『Dongyi Suse Bow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9;11(2):1-26. (Korean)
4. Kim JJ, Lee YS,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leeping, Stool, Urine According to Taeyangsoyangin(Yangin) and Taeumsoeumin(Eumi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5;17(3):82-90. (Korean)
5. Kim JY.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6;8(1):337-347. (Korean)
6. Kim YW, Kim JW.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9;11(1):119-135. (Korean)
7. Lee YO, Kim JW.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2;14(3):74-84. (Korean)
8. Choi JY. A Study of ordinary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using logistic regression . Doctoral Dissertation of Dongguk Univ. 2003. (Korean)
9. Kim SM, Song IB. A Study of ordinary symptoms in the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and DongmuYugo.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0;12(2):67-77. (Korean)
10. Choi JY,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tool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 Medicine.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2;14(2):58-68. (Korean)
11. Choi JY, Lee YS, Park SS. The Characteristics of Perspira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Korean Oriental Med. 2002;23(4):186-195. (Korean)
 12. Choi JY, Choi JR, Lee US, Park SS. A Study on the Clinical Features of Ordinary sleeping Patterns Based on the Sasang Constitution,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Kor J, of Oriental Medicine. 2004;25(4):171-179. (Korean)
 13. Choi JR,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leep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3;15(3):204-215. (Korean)
 14. Choi JR, Choi JY, Lee YS, Park SS. A Study on the Clinical Features of the Ordinary Sleeping Patterns of Taeumin Using Logistic Regress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16(3):18-24. (Korean)
 15. Baek TH, Choi JR, Park SS. A Correlation Research of Diges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16(1):112-119. (Korean)
 16. Jang ES, Kim HS, Lee HJ, Baek YH, Lee SW. The Clinical Study on the Ordinary and Pat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7;19(3):144-155. (Korean)
 17. Baek YH, Kim HS, Lee SW, Ryu JH, Kim YY, Jang ES. The Study On the Ordinary Symptoms Characteristics of Gender Differenc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ean J. Oriental Pyysiology & Pathology 2009;23(1):1-8. (Korean)

첨 부

소증·병증 설문지

소증 설문지	
아래 항목은 평소 증상을 중심으로 최근 6개월 내의 본인의 생활습관에 대해 기재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시고 애매한 경우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있는 부분은 중복체크 가능합니다.	
식사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1 <input type="checkbox"/> 예 2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평소 하루 식사량은 어떻습니까? 1 <input type="checkbox"/> 보통 2 <input type="checkbox"/> 많다 3 <input type="checkbox"/> 적다 4 <input type="checkbox"/> 일정하지 않다
	평소 식사 속도는 어떻습니까? 1 <input type="checkbox"/> 보통 2 <input type="checkbox"/> 빨리 먹는다 3 <input type="checkbox"/> 천천히 먹는다
소화	소화가 잘 되십니까? 1 <input type="checkbox"/> 예 2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항목에서 소화가 안된다에 체크한 경우) 소화가 안되어 불편합니까? 1 <input type="checkbox"/> 예 2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평소 입맛이 어떻습니까? 1 <input type="checkbox"/> 보통 2 <input type="checkbox"/> 좋은 편 3 <input type="checkbox"/> 안 좋은 편
땀	평소 땀을 어느 정도 흘리는 편입니까? 1 <input type="checkbox"/> 많다 2 <input type="checkbox"/> 적당하다 3 <input type="checkbox"/> 적다 4 <input type="checkbox"/> 없다
	땀을 흘리고 난 뒤 기분이 어떻습니까? 1 <input type="checkbox"/> 상쾌 2 <input type="checkbox"/> 피곤 3 <input type="checkbox"/> 아무느낌 없다
	(*)땀이 날 경우 주로 나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 1 <input type="checkbox"/> 머리와 얼굴 2 <input type="checkbox"/> 목 3 <input type="checkbox"/> 가슴과 겨드랑이 4 <input type="checkbox"/> 등 5 <input type="checkbox"/> 손 6 <input type="checkbox"/> 발 7 <input type="checkbox"/> 사타구니 8 <input type="checkbox"/>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난다.
	(*)식은 땀, 혹은 식사 시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두 체크) 1 <input type="checkbox"/> 없음 2 <input type="checkbox"/> 밤에 식은땀 3 <input type="checkbox"/> 낮에 식은땀 4 <input type="checkbox"/> 식사 시 땀남
대변	대변 습관은 어떻습니까? 1 <input type="checkbox"/> 규칙적 2 <input type="checkbox"/> 불규칙적
	대변을 보는 횟수는? 1 <input type="checkbox"/> 2-3회/1일 2 <input type="checkbox"/> 1회/1일 3 <input type="checkbox"/> 1회/1~2일 4 <input type="checkbox"/> 1회/2일 5 <input type="checkbox"/> 2회 이하/1주
	대변보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1 <input type="checkbox"/> 빠르다 2 <input type="checkbox"/> 보통 3 <input type="checkbox"/> 느리다
	대변의 굵기는 어떤 편입니까? 1 <input type="checkbox"/> 가는 편 2 <input type="checkbox"/> 중간 3 <input type="checkbox"/> 굵은 편
	대변의 굳기는 어떤 편입니까? 1 <input type="checkbox"/> 딱딱함 2 <input type="checkbox"/> 중간 3 <input type="checkbox"/> 무름
	대변의 양상은 어떤 편입니까? 1 <input type="checkbox"/> 설사 2 <input type="checkbox"/> 변비 3 <input type="checkbox"/> 변비설사교대 4 <input type="checkbox"/> 음식 따라 다름 5 <input type="checkbox"/> 보통
	대변을 볼 때 또는 보고나면 시원합니까? 1 <input type="checkbox"/> 시원하다 2 <input type="checkbox"/> 시원하지 않다
	(위항목에서 시원하지 않다에 체크한 경우) 대변이 시원하지 않아 통증도 있습니까? 1 <input type="checkbox"/> 예 2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병증 설문지	
<p>아래 항목은 평소 불편한 증상 중 최근 6개월 내에 본인이 느끼는 것에 대해 기재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예와 증상에 (✓)하시고,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에 (✓)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중복체크 가능합니다.</p>	
부 위	증 상 (모두 체크)
머 리	(*)머리부위에 불편한 부위가 있습니까? 1□앞머리 2□옆머리 3□뒷머리 4□머리 전체 5□없다
	(*)머리가 불편한 부위가 있는 경우 불편할 때 양상은 어떻습니까? 1□무겁다 2□열나듯이 아픔 3□찌르듯 아픔 4□메스꺼우면서 아픔 5□ 텅빈 느낌
몸	(*)머리 외 아래부위에 통증이 있습니까? 1□어깨 혹은 뒷목 2□등 3□허리 4□무릎 5□없다
눈	(*)눈 쪽에 불편한 증상이 간혹 있습니까? 1□눈의 통증 2□건조 3□충혈 4□눈피로 5□눈이 뻑뻑하거나 껌껌하다 6□없다
입/ 목	(*)입 쪽에 불편한 증상이 간혹 있습니까? 1□입마름증 2□입냄새 3□입안 자주 헐다 4□기침 5□가래 6□인후통 7□없다
가 슴	(*)가슴 쪽에 불편한 증상이 간혹 있습니까? 1□답답함 2□아픔 3□심장 뛰는 느낌 4□두근거림 5□자주 한숨 쉬 6□없다
배	(*)소화기 쪽에 불편함이 간혹 있습니까? 1□잘 체함 2□토함 3□울렁거림 4□가스 참 5□복통 6□허기짐 7□트림 자주남 8□속쓰림 또는 신물 올라옴 9□음식물 잘 안내려감 10□식욕이 지나치게 좋음 11□없다
피 부	(*)피부 쪽에 불편함이 간혹 있습니까? 1□피부 건조 2□피부 가려움 1□없다
감 기	(*)감기가 걸렸을 때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어떤 증상입니까? 1□무증상 2□열 3□두통 4□어지러움 5□콧물 및 코막힘 6□귀가 멍함 7□기침(가래) 8□목부위 통증 9□몸살 10□팔다리 저림 11□식욕감퇴 혹은 소화장애
건 강	전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건강하지 못함 2□건강하지 못함 3□보통임 4□건강함 5□매우 건강함
기 타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자주 문제가 생기는 부위는 어느 쪽입니까? 1□땀 분비 2□소화 3□대변 4□소변 □기타()
	(*)기타 불편한 증상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거나 적어주세요. 1□붓는다 2□건망 3□어지럼증 4□하지무력 5□관절 붓고 열남 6□기타 증상()